

梁啓超의 變法論에 대하여

——戊戌政變 以前을 중심으로——

全 容 萬*

I. 머리말

IV. 改革方向의 提示

II. 中國의 現實과 三世說의 適用

V. 맺음말

III. 傳統의 再評價

I. 머 리 말

地理上の 발견 이후 점차 加速化되어온 西勢東漸의 현상은 阿片戰爭을 거치면서 中國에 격렬한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異質文明의 충격은 佛敎의 中國受容 이래 최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武力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科學의 知識이 뒷받침 된 것이었다. 그러나 産業化된 새로운 文明의 受容過程은 점차 帝國主義라는 군사적·경제적 侵奪로 나타났다. 따라서 中國人들은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여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당면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西洋人들의 위협은 異民族인 清朝支配의 모순을 漢人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것은 정치적 질서 자체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內外的 위기는 中國人들에게 새로운 思想의 출현을 강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西洋化와 科學化를 指向하여 주어진 현실에 대처하려 하였던 것이다.

中華意識에 깊게 빠져 있었던 中國人들에게는 이러한 대응 자체가 크나 큰 고통의 연속이었으며, 결국 그것은 中國에 대하여 전통문화의 변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構造자체의 변화까지도 불가피하게 만들어 버렸다. 다른 말

* 東亞大學校 史學科 專任講師

로 표현한다면, 이시대를 '전통문화의 변질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戊戌改革은 이러한 변질기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노력 중의 하나였으며, 西洋의 영향으로 中國이 産業化된 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개혁 움직임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의 受容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前提로 한 것이었다.¹⁾

戊戌改革에 참여한 主役의 한사람이었던 梁啓超(1873~1929)에 관한 연구는 戊戌改革研究의 일부분으로서 많은 언급이 있어 왔다. 그리고, 梁啓超 개인을 주제로한 傳記的 性格의 著述과, 梁을 통하여 時代的 潮流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적지 않았다.²⁾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日本亡命後의 梁啓超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그는 新民說을 제창하였고, 孫文(1866~1925)을 위시한 革命派와의 論戰도 매우 활발하게 벌였던 것이다. 또한 傳統的인 학문경향을 탈피해 버리려는 노력을 크게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政界은퇴 이후 著述活動에 몰두하였던 晩年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어온 느낌이 있다. 그리고 戊戌政變으로 말미암아 日本으로 亡命하기 이전의 시기를 初期라고 부를 수 있다면³⁾, 이 시기

1) Hao Chang, "Liang Ch'i-ch'ao and Intellectual Changes"; *J.A.S.* 29-1(1969) pp. 23~25 참조. Hao Chang은 1890s의 改革運動에 대하여 19世紀의 知的變化가 表출된 하나의 정치적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Joseph R. Levenson, *Liang Ch'i-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67).

Hao Chang, *Liang Ch'i-ch'ao and intellectual Transition in China 1890-1907* (Harvard Univ. Press, 1971).

Philip C. Huang, *Liang Ch'i-ch'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 (Univ. of Washington Press, 1972).

張朋園, 「梁啓超與清季革命」(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64) 등을 들 수 있다.

3) 梁啓超는 자신의 思想的 轉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戊戌九月至日本 十月與橫濱商界諸同志 謀設清議報 自此居東京者一年稍能讀東文 思想爲之一變["三十自述": 「飲冰室文集」(臺北, 中華書局, 1978) 11, p. 18. 이하 "三十自述" WC 11: 18로 略記함]. 필자는 本稿에서 初期라는 구분에 대하여 日本亡命 이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의 梁에 관한 연구도 스승인 康有爲(1858~1927)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疎略한 느낌이 없지 않다.

梁啓超의 생애자체가 당시 지식인들의 思想的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史料로 여겨질 수 있다면, 變法을 크게 강조하였던 그의 初期思想에 관한 연구도 더욱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⁴⁾ 그리고 戊戌改革의 실패는 위기극복을 위한 內的改革의 실패를 의미하며, 淸朝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梁啓超의 初期思想에 관한 論議는 19세기末 변질기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 中國의 現實과 三世說의 適用

廣東省 新會縣에서 1873년에 태어난 梁啓超가 西洋에 관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세(1890)때의 일이다. 12세에 秀才, 17세에

- 4) 梁啓超의 생애에 대하여서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4시기 내지 5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左藤震二는 梁의 人間觀·社會觀을 中心으로 삼으면서 ①變法運動時期(1896~1898) ②日本亡命後 康有爲로 부터 이탈해 버린 1902年을 中心으로 한 수년간 ③梁啓超와 排滿革命派와의 思想抗爭期(1906~1911) ④政界活動期(1912~1917) ⑤晩年の 學術著作期(1918~1929)로 구분한다. [「中國의 思想家」(東京大學中國哲學研究室編, 1963) pp. 791~804]. 毛以亨은 ①少年讀書時期(1873~1894) ②維新運動時期(1894~1898) ③流亡辦報時期(1898~1912) ④民初從政時期(1912~1917) ⑤文化運動的 晩年(1918~1929)로 구분하며 [「梁啓超」(臺北, 華世出版社, 1975)], 胡平生도 같은 구분을 보여 준다 [「梁啓超」; 「中國歷代思想家」52(臺北, 商務印書館, 1978)]. 閔斗基교수는 梁의 思想에 대하여 變法→革命→立憲→保守主義의 歸宿으로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고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Levenson의 3時期 구분에서看過된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즉 Levenson은 *Liang Ch'i-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에서 梁의 생애를 Metamorphosis (1873~1898) Brave and New World (1898~1912). Remembrance of Things past (1912~1929)로 구분하였고, 1902~1903에 보이는 思想的 轉變이看過되었다는 것이다. 梁啓超는 특히 1903年の 美洲旅行 이후 革命→立憲의 變化를 명확히 보여준다. [「梁啓超 初期思想의 構造的 理解」; 「中國近代史研究」(서울, 一潮閣, 1973) pp. 339~363]. Philip C. Huang도 Levenson의 연구에 대하여 역시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앞의 책 p. 204).

舉人에 합격하였던 그는 1890년 北京會試에 실패하여 歸鄉하던 중 上海에서 몇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上海에서 「瀛環志略」을 購讀하고 비로소 세상에는 五大洲와 各國이 있음을 알았고, 上海製造局에서 번역한 몇권의 책은 탐이 났으나 購入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⁵⁾

같은 해에 學海堂에서의 學業을 중지하고 陳千秋와 함께 康有爲의 門下生이 되었다. 西洋에 대한 관심도 크게 가지고 있었던 康有爲를 통하여 梁啓超는 公羊學에 접하게 되었으며, 이는 梁의 思想的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梁의 西洋에 대한 관심과 經世思想을 강조하는 公羊學에의 入門은 淸·日戰爭이라는 時局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變法運動을 指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895년 淸·日戰爭에서 패배한 中國은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臺灣을 할양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中國人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北京會試에 응시하려왔던 梁啓超는 康有爲를 도와서 拒和·遷都·變法을 주장하는 公車上書를 올렸으며, 各省의 舉人 약 1200人이 이에 동조하였다.⁶⁾ 또한, 淸·日戰爭의 패배는 同治初年 이래 추진되어 왔던 소위 洋務派 관료들에 의한 富國強兵化 施策에 대하여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列強에 의한 中國의 瓜分이라는 危機意識은 康有爲·梁啓超등의 變法主張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政治活動을 하게 만들었다.

梁啓超는 康有爲를 도와 1895년 가을에 北京에서 強學會를 설립하고 書記를 맡았으며, 中外公報에 寄稿함으로써 言論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 봄에는 汪康年(1860~1911)과 함께 上海에서 時務報를 創刊하여 變法派의 탁월한 理論家로서 적극적인 言論活動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⁷⁾

5) “三十自述” WC 11: 16.

6) “康南海自編年譜”; 「戊戌變法文獻彙編」四(臺北鼎文書局影印, 1973) p. 130.

7) 淸·日戰爭後 中國에서는 民間人 경영의 民報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民間人들이 政論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戈公振, 「中國報學史」(臺北, 學生書局影印, 1982) pp. 145~153 참조]. 康梁을 위시한 嚴復(1853~1921)·汪康年·唐才常(1867~1900)등 維新人士들 대부분이 新聞이나 雜誌에 대하여 啓蒙의인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그들은 報章 혹은 報刊에 대하여

梁啓超는 時務報의 論說들에서 그의 變法思想을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 글들을 통하여 그는 당시 中國의 現實을 어떻게 보았으며, 變法の 當爲性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며, 變法思想의 理論的 基礎인 三世說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 時務報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그의 中國 現實觀은 매우 비관적인 것이었다.

中國의 建國이 오래되었음은 印度와 같고, 土地의 肥沃함은 터어키족들의 그것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弊端이 쌓여 變化를 이룰 수 없고, 印度와 터어키족 사이에서 (세력) 伯仲하므로 땅이 더 넓지 않고 사람만 가득차서 걱정이다.…… 京師에서는 한해 겨울에 죽는자가 千名이며, 흉수나 가뭄이 있으면 길이 통하지 않아 구조할 수 없고……바닷가의 사람들은 음식을 얻을 수가 없어 南洋이나 美洲로 도망하여 몸을 팔아 노예가 되고……學校가 없으므로 學者는 帖括 이외에 하나도 모른다.……兵學을 가르치지 않으니……百戰百敗하여……하나의 官職에 여러명이 있거나 한사람이 여러 官職을 가지며……肉食이 조정을 메워도 人才가 적어 걱정이다. 제도적 폐단이 이와 같으니 敵國의 침략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여 듣는 것이 없다……⁸⁾

中國의 現實에 대하여 비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던 梁啓超는 그 原因을 士大夫들의 意識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中國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士大夫들은 天心이다 혹은 國運이다라고 할 뿐이며, 따라서 中國이 亡하는 것은 가난·弱함·外患·內訌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士大夫들의 議論과 의식상태에서 亡한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그는 教育을 통하여 人才를 길러야 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變法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中國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變法 즉 制度改革이라 생각한 梁啓超는 法이란 天下의 公器이고 變化는 天下의 公理라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變할 때에만 他人에게 얹매이지 않고 保國·保種·保教할 수 있다고 한다. 그

解蔽達聰 去塞求通의 효능이 있다고 보았으며, 梁啓超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維新人士들은 報章을 三代의 采風問俗의 遺制로 삼았다. 梁啓超도 日本亡命後 비로소 報業이 갖는 民主政制 中の 地位와 價値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賴光臨, 「梁啓超與近代報業」(臺北, 商務印書館, 1968) pp. 13~16 참조].

8) “變法通議” WC 1: 3.

9) “保國會演說詞” WC 3: 27.

러므로 그는 西洋에 패했다는 것이 國家의 큰 근심이 아니라 능히 自強할 수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논의는 모두 同治帝 이후의 施策들에 대하여 비판적 의도를 가진 것들이다.

실제로 洋務派 官僚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富國強兵策들은 군사적 목적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洋務派官僚의 중요한 관심은 백성에 대한 탄압도 있었지만 西洋列強과 日本의 침략을 방지하는 것에 보다 큰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施策은 戊戌政變時에 張之洞(1837~1909)등에게서 볼 수 있었듯이 자신들의 存立배경을 이루는 儒敎的 政治體制的 保持手段이기도 하였다. 당시 官督商辦의 企業은 곧 李鴻章(1823~1901) 등의 권력강화도구였던 強兵을 위하여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北洋海軍의 규모는 日本에 필적할만 하였지만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였고 富強은 달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¹¹⁾

그러므로 梁啓超는 明治維新 이후의 日本과 中國을 비교하면서 變法の 當爲性을 찾아 나가고 있다.

政法이란 立國의 근본이다. 日本의 變法은 근본을 먼저하였고, 中國의 變法은 末에 힘을 쏟았다. 그러므로 일은 같았지만 그 효과는 크게 달랐다.¹²⁾

근본이라는 것은 憲法을 中心으로한 여러 종류의 法律들을 말하고, 末이란 技藝를 말한다. 이는 洋務派 官僚들이 주도한 強兵策이 결과적으로 日本과의 전쟁에서 실패로 증명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變法 즉 制度改革은 현실적으로 日本의 例를 보더라도 當爲性을 갖는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¹³⁾

요컨대 梁啓超는 天地萬事萬物이 모두 變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古今之

10) “變法通議” WC 1: 7~8.

11) 市古宙三, “洋務運動と變法運動”; 「近代中國の政治と社會」(東京大學出版會, 1977) pp. 187~193 참조.

12) “變法通議” WC 1: 69.

13) 梁啓超는 守舊不變 혹은 內訌등으로 식민지화한 국가들로서 印度・波蘭・高麗・越南・버어마를 例로 들고, 改革을 통하여 強國이 된 국가들로서 러시아・프러시아・日本 및 弱小國이지만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타일랜드를 例로 들고 있다. (“變法通議” WC 1: 2~3).

理라고 하였다. 그리고 法(制度)도 新法이 채택됨으로써 國家가 잘 다스려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詩」의 文句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 즉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新法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梁啓超는 이러한 變法の 當爲性을 理論적으로 체계화 하기 위하여 中國歷史의 해석에 公羊派의 三世說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 속에서 그는 直線的 歷史發展의 必然性和 당시 中國의 현실에 대한 變法の 當爲性을 결합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清末公羊派¹⁵⁾는 董仲舒(176? B.C.~104? B.C.)와 何休(129A.D.~182A.D.)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董仲舒의 循環의 歷史觀인 三統說, 政治思想으로서의 仁政, 專制權力을 견제할 수 있는 災異說과 何休의 直線發展史觀인 三世說이 清末公羊派에게 영향을 준 思想의 要素들이다. 孔子는 天道를 거의 말하지 않았고 孟子는 신비주의적인 면을 보여주었으나, 董仲舒는 陰陽思想과 孔子의 思想을 융합시켜 天和 人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그의 정치사상의 초석으로 삼았다. 그는 주로 나쁜 정조들만을 말하였고, 今文經學의 이러한 모호함은 康有爲가 專制政治를 공격하기에 쉽게 해 주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康有爲는 「禮記」의 “禮運”篇에 있는 小康·大同의 개념과 三世說을 결합시켰다. 그리하여 역사의 진행방향을 미래에 둠으로써 進步의인 면을 보여 주었다.¹⁶⁾ 이러한 康有爲의 思想은 梁啓超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梁은 마침내 자신의 變法思想을 展開함에 있어 三世說을 理論의 기초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¹⁷⁾

14) 梁啓超는 時經의 周雖舊邦 其命維新을 言治其國必用新法也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WC 1: 1~2).

15) 淸中期以後 公羊派의 대표적 인물로서는 莊存與(1719~88) · 劉逢祿(1776~1829) · 魏源(1794~1856) · 龔自珍(1792~1841) · 康有爲(1858~1927) 등을 들 수 있다.

16) Philip C. Huang, 앞의 책, pp. 14~20 및 馮友蘭, 「中國哲學史」, Derk Bodde 譯,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Vol. II (Princeton Univ. Press, 1953), pp. 7~87, pp. 676~691 참조.

17) 17세(1889)에 舉人이 된 梁啓超는 이듬해인 1890년에 季才인 康有爲를 만나 스승으로 모신 후 그의 「長興學記」를 얻어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 梁啓超가

梁啓超는 歷史의 進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97년에 嚴復(1853~1921)에게 보낸 편지¹⁸⁾에서,

「春秋」에서 말하기를 다스림에는 세가지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데 據亂・升平・太平이다. 據亂之世는 여러명의 君主가 다스리는 시대이고, 升平之世는 한명의 君主가 다스리는 시대이며, 太平之世는 백성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나는 항상 말해 왔다. 무릇 世界는 반드시 據亂・升平・太平으로 이행한다. 그러므로 그(시대의) 정치도 반드시 多君이 먼저이고 一君・無君으로 이행한다.¹⁹⁾

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直線發展史觀論者임을 보여주며, 그것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移行이 必然的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이 글에서 군주제도에 중요성을 크게 둔 政治制度史的 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제도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며, 개혁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梁啓超는 각각의 시대에 해당하는 권력의 소재를 더욱 細分하여 말하고 있다.

여러명의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는 또 다시 둘로 나누어지니 하나는 酋長之世이

治學修養論인 「長興學記」로 부터 영향받은 점에 대하여 張朋園은 平等之義와 任公이 30세 이전에 즐겨 말하던 三世之義로 推論하고 있다(張朋園, 앞의 책 pp.13~20). 그러나 張朋園은 '平等'이 사회적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人間의 基本權등과 관련이 있는가 등의 개념분석을 하지는 않고 있다. 康有爲도 自編年譜에서 光緒十六年……八月梁啓超來學……吾乃告之以孔子改制之意……又告以大世界中三世 後此大同之世 復有三統 則信而證之 天才亮特 聞一知二……라 하고 있다(「戊戌變法文獻彙編」四, p.123).

- 18) “與嚴幼陵先生書”를 쓴 시기가 飲水室文集에는 1896(光緒 22)년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1897년 중반기의 것이다. 편지의 내용 중에 時務報(1896년 8월 9일에 발간지작)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嚴復으로 부터 다음해 2월에 편지를 받았으며, 그 답장으로 쓴 것이다. [Philip C. Huang, 앞의 책, p.173 註 69 및 丁文江撰, 「梁任公先生年報長編初稿」(臺北, 世界書局, 1959) pp.41~42 참조]. 梁啓超가 쓴 글들의 집필 시기에 대해서는 「梁啓超와 舊韓末文學」(葉乾坤,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未發刊, 1979) pp.105~116 이 (陰曆을 기준으로 작성) 다소 참조된다.

- 19) “與嚴幼陵先生書” WC I : 108.

고 다른 하나는 封建 및 世卿之世이다. 한명의 君主가 다스리는 시대도 역시 둘로 나누어지니 君主之世와 君民共主之世이다. 백성(民)이 다스리는 시대도 역시 둘로 나누어지니 有總統之世와 無總統之世이다.…… 세시대와 여섯종류의 구분은 地球에 人類가 있는 이후 서로 관련되는 이치이다. 그 시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시대를 넘어갈 수 없으며 이미 그 시대로 진입하면 멈추게 할 수 없다.²⁰⁾

그는 中國의 歷史를 모델로 하여 三世說이라는 일종의 世界史 發展法則을 推斷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논리 하에서 그는 西洋의 현실을 규정하고 中國의 位置를 확인하며 中國이 나아가야 할 指向點으로 삼는 것이다.

中國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 하는 梁啓超의 論議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앞의 글들에서 말하는 歷史發展의 指向點인 太平世 즉 大同世는 어떠한 상태를 指稱하는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大同’이란 太平世의 政治的 社會的 理想을 말한다. 본래 ‘大同’이란 語彙는 「莊子」의 「在宥」篇에서 보이며 天地自然萬物과 一體가 되어버린다는 道家的 人生觀이 표현된 말이다. 「呂氏春秋」의 「有始」篇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大同’이란 관념은 「禮記」 「禮運」篇을 통하여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康有爲는 “禮運”에서 말하는 小康을 據亂과 升平에 비기고 大同을 太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大同書」에서 보여준 그의 大同思想은 유토피아적인 政治的 社會的 理想論으로서 譚嗣同(1865~1898)을 비롯한 당시 維新人士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며, 國家의 소멸과 萬人의 平等을 바탕으로한 自治組織속에서 자유를 누릴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²¹⁾

梁啓超의 논의도 康有爲와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太平의 시대는 天下의 遠近과 大小가 하나로 되어 國家間的 境界가 없고 種族間的 구별이 없으며 兵事 兵器 兵制도 없다. 나라에서 막땅히 폐해야 할 것은 오

20) “論君政民政相體之理” WC 2: 7.

21) 韋政通, 「中國哲學辭典」(臺北, 1970) pp. 64~66, pp. 67~69, 小野川秀美, “康有爲의 變法論”; 「清末政治思想史研究」(東京, 1969), pp. 86~156 및 梁啓超, 「清代學術概論」(臺北, 中華書局臺八版, 1974) pp. 58~60 참조.

직 農業·商業·醫療 製造등의 일이다. 백성들은 男女구별없이 각각 하나의 職業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有能 無能의 구별이 없다.²²⁾

이러한 論議는 전통적인 復古思想과는 전혀 다르다. 原始共產社會도 아니며 단순히 儒家經典에서 보이는 도덕성만이 강조된 것도 아니다. 도덕성 뿐만이 아니라 文明化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各의 시대에 대하여 據亂世에는 힘(力)으로써 이기고 升平世에는 智慧와 힘이 서로 다투고 太平世에는 智慧로써 이긴다는 것이다.²³⁾ 또한 각 시대의 民性에 대하여 據亂世에는 民性이 惡하고 升平世에는 民性이 善하기도 하고 惡하기도 하며 太平世에는 民性이 善하다는 것이다.²⁴⁾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model을 梁啓超는 西洋에서 구할 수 밖에 없었으며, 民智의 啓發을 위해서 教育을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梁啓超는 이러한 관념하에서 世界史와 中國史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地球의 運勢는 이미 升平에 돌입하여 (힘으로써)사람을 짓밟는 惡風은 점차 사라지고 天然之公理가 차츰 나오며²⁵⁾, 장차 太平世로進入할 것²⁶⁾이라고 康有爲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²⁷⁾

梁啓超는, 春秋三世之義에 대하여 據亂世에는 (자신의) 나라를 領內로 하고 (內其國)(다른) 여러 諸侯國들을 領外로 하며(外諸夏), 升平世에는 여러 諸侯國들을 領內로(內諸夏)하고 彝狄을 領外로 하며(外彝狄), 太平世에는 天下의 遠近大小가 하나로 되어 彝狄이 爵位에까지 나아간다고 하면서,

22) “變法通議” WC 1: 43.

23) “變法通議” WC1: 14.

24) “讀孟子界說” WC 3: 19.

25) “戒纏足會序” WC 1: 121.

26) “論君政民政相嬗之理” WC 2: 11.

27) 小野川秀美, 앞의 책, pp. 94~98 참조. 梁啓超는 康有爲의 생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도 하고 있다. ‘南海先生嘗言 地球文明之運 今始萌芽耳 譬之有文明百分 今則 中國僅有一二分 而西人已有八九分 故常覺其相去甚遠 其實西人之治猶未也(“與嚴幼陵先生書” WC 1: 109). 妄孟華의 경우도 愚民들끼리 다투는 현재를 升平世의 末로 보면서 太平世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時務報 26冊, 3b~4b).

(이러한) 孔子의 학문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秦 이전은 所傳聞世(據亂世)이다. 齊魯의 儒者들이 六藝를 講誦하여 風氣를 이루니……이른바 內其國이다. (그리고) 漢에서 지금까지는 所聞世(升平世)이다. 中國이 統一되어 같은 種族은 모두 法을 존중하니 이른바 內諸夏이다. 만일 所見世(太平世)의 다스림이 蠻貊에 베풀어져 夏로써 오락케를 변화시키려면 據亂・升平 이후에 있는 일이다.²⁸⁾

라고 말한다. 그는 中國의 現實이 升平世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君主制度의 발달에 있어서도 多君의 시대에서 一君의 시대로 변하는 분기점은 秦漢 이래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西洋의 歷史에 대해서도 三世之義에 입각한 歷史發展을 論한다. 다만 각 시대의 지속기간이 中國과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즉 西洋과 中國의 차이를 3,000年內의 일에 대하여 말한다면, 西洋이 多君의 시대가 길었고 一君의 시대가 짧았으며 中國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民政이 실시되면 그 成功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西洋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때부터 升平世인가 하는 것은 論하지 않고 있다. 西洋의 中世封建時代가 끝나는 때까지를 據亂世로 암시할 뿐이다. 그리고 西洋에서 民氣가 크게 신장된 것이 불과 백년 이래의 일로서, 中國도 이제 그러한 뜻을 살린다면 백년 이내에 文明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中國과 西洋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先後低昂이 있는 것이 아니라 地球 전체로서 본다면 아침과 저녁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³⁰⁾

西洋의 여러 文明國들도 모두 개혁의 결과로 본 梁啓超는 變法の의 결과에 대한 네가지의 例를 제시하고 있다. 自變者로서의 日本, 他人이 權力을 잡고 대신 變化시켜준 터어키, 他國에 병합되어 變한 印度, 그리고 여러 국가에 의하여 분할되어 變한 波蘭을 그 例로 들고 있다.³¹⁾

28) “復友人論保教書” WC 3: 11. “新學偽經考較” WC 2: 62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여준다.

29) “論君政民政相贖之理” WC 2: 11.

30) “與嚴幼陵先生書” WC 1: 109.

31) “變法通議” WC 1: 8 및 註 13) 참조.

이와같이 梁啓超가 變法을 통한 中國의 強國化를 주장했다는 점은 그도 역시 19世紀 末의 歷史的 產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19世紀 중엽 이후 中國知識인들이 認知한 당면과제는 中國과 西洋과의 간격을 어떻게 좁히는가에 있었고, 그것은 1860s 西洋의 技術과 兵器의 도입 1870s의 근대적 산업의 시작등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淸日戰爭(1894~1895)의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으니 明治維新이후의 日本의 發展에서 해답과 희망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梁啓超는 이러한 歷史的 상황에 대하여 三世說로서 變法の 必然性을 설명하고, 그 例를 西洋諸國과 日本에서 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戊戌政變으로 말미암아 日本으로 亡命한 후 그의 三世說은 進化論의 영향으로 점차 퇴색해 갔으며, 마침내 좀 더 科學的인 理論體系로 변모할 수 밖에 없었다.³²⁾ 이는 그의 理論이 本質的인 面을 깊이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危機意識의 產物임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그는 中國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좀더 科學的이고 理想的인 것을 찾아 轉變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Ⅲ. 傳統의 再評價

梁啓超는 三世說로서 變法の 必然性을 論하였다. 더 나아가 그것은 變法の 성공가능성에 대한 論議로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論議는 傳統에 대한 再評價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傳統에 대한 再評價는 필연적으로 反變法論者들의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戊戌政變을 前後하여 變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은 德治와 法治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적인 反變法論者들의 정치사상은 國家를 다스림에 있어서 人治 혹은 德治로 해야하고 祖宗之法을 廢할 수 없으므로 變法은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中國이 西洋보다 절

32) 小野川秀美, “淸末の思想と進化論”; 앞의 책 pp. 249~284참조.

국 우월하다는 比較優劣論者들은 中國의 제도가 이미 우월하므로 西洋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³³⁾

그러나 그들은 西洋의 正體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논의할 뿐만 아니라 中華意識과 經學에 바탕을 둔 倫理的 聖人之治의 이치에 따라 논하고 있다. 그들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점이 매우 컸던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모두 變法派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부정하는 추상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康有爲·梁啓超 등의 급진적 개혁론에 반대한 反變法論者들로서는 王先謙(1842~1918)·葉德輝(1864~1927)·張之洞(1837~1909) 등의 紳士 계층을 들 수 있으며, 대개 그들은 康有爲·梁啓超 등의 維新人士들과는 달리 社會的으로 안정과 既得權을 누리고 있었던 實力者들이었다.

梁啓超는 그들의 反變法 思想에 대하여 西洋의 制度에 비견할만한 것이 中國의 古代에도 이미 있었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變法の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梁啓超의 그러한 논의는 時務報 10冊(1896. 11. 5)에 실린 “古議院考”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는 中國의 古代에 議院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議院의 명칭은 없었지만 그러한 實體는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증거를 그는 中國의 儒家經典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즉 「易」「書」「周官」「禮記」「孟子」등에서 백성들의 의사가 정치에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인용하면서 上議院과 下議院에 비기고 있는 것이다.³⁴⁾ 그리고 그후, 예를 들면, 漢代の 諫大夫 博士 議郎은 三代之 遺習이며 三代明王들의 遺制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서

33) 陳鑒, “戊戌政變時反變法人物之政治思想”, 燕京學報 25(北京, 1939); 吳相湘等編, 「中國近代史論叢」 1輯 7冊(臺北, 1956) pp. 148~170 참조.

34) “古議院考” WC 1: 94~95.

其在易曰 上下交泰 上下不交否 其在書曰 詢謀僉同 又曰 謀及卿士 謀及庶人 其在周官曰 詢事之朝 小司寇掌其政 以致萬人而詢言……其在記曰 與國人交止於信 又曰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其在孟子曰 國人皆曰賢 然後察之……洪範之卿士 孟子之諸大夫 上議院也 洪範之庶人 孟子之國人 下議院也……故雖無議院之名 而有其實也.

漢代の 議曹은 西洋의 議會에 비견할 수 있고 地方自治制下의 議會와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³⁵⁾

梁啓超는 議院制度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보여준다. 古代에는 오늘날의 民報와 官報에 비길만한 것이 있었고, 三代가 强盛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보고 있다.³⁶⁾ 그 뿐만이 아니라 梁啓超는 자신의 改革意志를 學校制度의 變革에 큰 역점을 두었었는데 學校制度도 三代에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그것이 三代强盛의 이유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³⁷⁾ 그리고 學會도 西洋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中國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이며 「易」과 「論語」등에서 증거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³⁸⁾, 師範學校도 三代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³⁹⁾

1897年 5월에 자신이 撰輯한 「西政叢書」의 敍文에서도 그는 西洋의 政制는 公理에 合致되며 中國의 三代聖人들의 平天下之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⁴⁰⁾ 더 나아가서 그는 西洋인들이 오늘날 구하고 있지만 얻지 못한 것도 中國의 聖인들이 數千年 前에 발명했다는 것이다.⁴¹⁾

이러한 西洋文物中國已有說은 明清時代西學이 수용되기 시작한 이래 있어 왔던 논의이다. 처음에는 주로 科學의 機器가 이미 中國에 있었다는 논리가 많았으나 점차 西學 자체가 中國에서 起源했다는 說로 발전되었으며, 아편 전쟁 이후에는 西洋의 制度도 中國의 古代制度와 관계가 있다는 논의로까지 확

35) “古議院考” WC 1: 95~96.

36) “論報館有益於國事” WC 1: 100~103.

37) “變法通議” WC 1: 14.

38) “變法通議” WC 1: 31~32.

學會起於西乎 曰 非也 中國二千年之成法也 易曰 君子以朋友講習 論語曰 有朋自遠方來 又曰 君子以文會友……孔子養徒三千 孟子從者數百……

39) “變法通議” WC 1: 35.

書曰 作之君 作之師 記曰 人其父生而師教之……古者學校皆國家所立. 教師皆朝廷所屬 故大戴七屬 言學則任師 周官九兩 言以賢得民……然則師範學校之制 徵之三代 雖書闕有間 若乃其意則可推而見矣.

40) “西政叢書敍” WC 2: 62~64.

41) “西學書目表後序” WC 1: 128.

대되었다. 數學 天文學 化學 등 自然科學에 대한 西洋文物 中國 已有說의 논의는 그들에게 비교적 論理性을 가진 것으로 보였던 墨子에 대한 研究를 19世紀 末이 되어 비로소 강조하게끔 만들 정도였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宗教, 예를들면, 기독교도 墨子에서 유래했다고 할정도였다.⁴²⁾ 馮桂芬(1809~1874)·陳軾(~1899)·王韜(1828~1897)·張之洞·康有爲·梁啓超 등을 위시한 대부분의 開明知識人들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中國의 改革에 대처하는 논리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며, 變法論者들은 특히 制度面에 치중하여 논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西學의 도입과 中學의 존재에도 정당성을 부여 해주는 緩衝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梁啓超의 경우 「變法通議」에서 이러한 論議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의 三世說에 비추어 보면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는 歷史가 據亂에서 升平으로 升平에서 太平으로 必然의으로 진전한다고 보았는데, 그 점은 바로 三代가 強盛했다는 論理와 크게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古議院考”에 대한 附會의 不當함을 嚴復으로 부터 지적받고 답한 편지에서⁴³⁾ 자신은 그러한 근거없는 附會說을 싫어하지만 新聞紙上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글에서는 가끔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希臘·羅馬의 시대는 民主가 아니며, 그것이 民主라면 中國에도 역시 民主가 있었다고 하면서 歷史는 君主之世에서 民主之世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⁴⁴⁾ 이러한 점은 그의 思想이 西洋學問의 영향으로⁴⁵⁾ 비교적 근거있는 知識을 추구하려는 性向을

42) 全漢昇, “清末의 「西學源出中國」說”; 『嶺南學報』 4~2(廣州, 1935); 吳相湘等編, 「中國近代史論叢」 1輯 5冊(臺北, 1956) pp. 216~258 참조.

43) 편지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註 18) 참조.

44) “與嚴幼陵先生書” WC 1: 108~109. 이 당시 梁啓超는 1890s 중반부터 수용되기 시작한 進化論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小野川秀美, 清末の思想と進化論”; 앞의 책, p. 259).

45) 1898年 이전에 어떠한 外國語도 할 수 없었던 梁啓超의 西洋에 관한 지식성 취원천은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1896年에 梁이 편찬한 西學書目表와 1897年에 梁이 편찬한 西政叢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目錄은 대부분 軍事·醫學 商業 등에 관한 것이고, 西洋의 政治理論에 관한 것은 없다. 그리고 西洋宣敎士들의 改革論들을 접했을 것이며, 1895~1896 사이에 T. Richard와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Philip C. Huang, 앞의 책, pp. 32~34).

보여주는 것이며, 그 반면 아직까지 추상적 理論이 앞서 있으므로 그만큼 혼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梁啓超는 儒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단순한 儒家的 倫理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科學性을 指向하는 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仁學」을 著述한 譚嗣同과 Thomas H. Huxley의 「Evolution and Ethics」를 「天演論」으로 번역한 嚴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승이었던 康有爲가 以群爲體 以變爲用하면 千萬年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變法通議」를 썼으며 群의 의미를 밝혔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師說을 펴고 밖으로는 兩書(「仁學」과 「天演論」)에 의거했다고 한다.⁴⁶⁾

譚嗣同은 物質界의 근본을 'ether'(以太)라 하고 그것의 작용으로 孔子의 仁·墨子の 兼愛·佛敎의 慈悲·기독교의 靈魂이 發現된다고 보았다. 그는 儒家·佛家·기독교의 思想을 西洋科學知識과 折衷시켜 이해하였고, 그것은 利己·傳統숭배를 타파하고 皇帝崇拜思想과 古代尊崇 및 특정한 종교와 哲學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것을 목표로 하였다.⁴⁷⁾ 그리고 梁啓超가 1896년에 翻譯草稿를 읽은 적이 있었던 嚴復의 「天演論」은 당시 進化論의 受容에 큰 역할을 한 책이었다.

梁啓超도 그러한 折衷主義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64個의 原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무리(群)를 이룸으로써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天體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人間도 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각각의 物質을 이끌어 무리(群)를 이루게 하는 힘으로써 動力을 想定하고 있다.⁴⁹⁾ 그는 動·植物의 優劣도 群의 繁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며, 形體가 없는 知識까지도 역시 그러한 것으로 파악한다. 더 나아가 그는 君主조차도 民과 아울러 群의 일원으로 파

46) “說群序” WC 2: 3.

47) 馮友蘭, Derk Bodde 譯,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Vol. II, pp. 691~705 및 A.W. Hummel(ed.),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Washington, 1943~44) pp. 703~705 참조.

48) “說群一” WC 2: 4~7.

49) “說動” WC 3: 37~38.

악함으로써 國이나 君의 정통성을 天命에서 구하던 전통적인 縱的 君民秩序觀을 극복하였고, 또한 群과 群의 경쟁에도 같은 理致를 적용 시킴으로써 小數民族의 몰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折衷의 견해는 社會秩序와 自然의 秩序를 一致된 것으로 파악하였던 傳統的인 思潮의 연속이었으며, 西洋의 學問發達에 비교하여 볼 때 큰 격차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일생동안 여러번의 思想的 轉變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1898年 日本으로 亡命한 후 간접적으로나마 西洋을 체험하면서 革命을 부르짖게 되었고, 1903年 美洲旅行 이후에는 中國人들의 民主政治 力량의 결집을 이유로 다시 立憲君主制를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梁啓超는 이러한 折衷의 자세를 儒學의 再評價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從來의 儒學은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西學과의 折衷에서 구해질 수 있으며, 西學의 本質도 이미 孔子의 思想에 發現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孔子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도 折衷의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學問을 孔子에 의탁함으로써 정당성을 취하려는 경향은 中國의 많은 學者들이 이용해 왔던 舊習이며, 이 당시의 梁啓超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孔子를 進步主義者로서⁵¹⁾ 뿐만이 아니라 改制者로서 평가하였으며, 孔子의 그러한 의도는 특히 「春秋」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즉 「春秋」는 孔子가 制度를 改革하여 萬世에 가르침을 주려는 책이며, 事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義를 밝힌 것이며, 반드시 事에 의거하여 義를 밝혔으므로 그 뜻이 더욱 적절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孔子를 진보적이면서도 改革을 주창한 史官으로서 평가하는 것이다.⁵²⁾

梁啓超의 孟子에 대한 평가도 역시 孔子에 대한 평가와 軌를 같이 하고

50) “說群序” “說群一” WC 2: 3~7 및 閔斗基, “改革運動에 있어서의 民權論・平等論”; 「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一潮閣, 1985) pp. 284~285.

51) 梁啓超는 孔子의 三世說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中國舊論每崇古而賤今 西人則不然 以謂愈上古則愈野蠻 愈晚近則愈文明 此實孔子三世之大義也(“史記貨殖列傳今義” WC 2: 36).

52) “讀春秋界說” WC 3: 14~17.

있다. 다만 孔子를 立敎之人이라 하고 孟子를 孔子의 가르침을 계승한 一派로서 大同思想을 發現한 行敎之人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孔子의 후예이면서 經世를 강조한 사람으로서 孟子를 들고, 孔門의 文學之科를 강조한 사람으로서 荀子를 말한다. 그리고 荀子는 傳經의 업적은 있으나 微言大義를 잊지 못하였으며, 반면 孟子는 孔子의 大同思想을 이은 正派이지만 孟學이 한번도 실행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孟子의 保民思想이 西洋諸國의 정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⁵³⁾

이러한 論議는 결국 公羊學이 孔子와 孟子의 經世思想을 이은 正統派이며, 나아가서 그것은 西洋의 文物과 유사하다는 論理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孟子의 民本思想이 西洋의 民主政治와 같은 것이라는 論理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保民이라는 것도 春秋戰國時代에 귀족계급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생겨난 民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梁啓超의 論議는 매우 觀念的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傳統속에서 理論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던 그는 康有爲와 함께 變法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保敎 즉 孔子의 가르침을 宗教的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西洋에서는 敎皇의 權力이 날로 강해져서 各國의 君主가 모두 나아가 冠을 받았기 때문에 國力이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⁵⁴⁾ 그리고 孔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하고 있기도 하다. 즉 進化主義이며 非保守主義이고, 平等主義이면서 非專制主義이며, 兼善主義이면서 非獨善主義이고, 強立主義이면서 非文弱主義이고, 博包主義이면서 非單狹主義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孔敎의 이러한 점들이 民權과 平等을 重視한 것

53) “讀孟子界說” WC 3: 17~21.

이 당시 梁啓超의 學業目標은 아직도 儒家的 傳統에 깊이 빠져있음을 湖南時務學堂의 學約에서 엿볼 수 있다. 즉 立志·養心·治身·讀書·窮理·學文·樂群·攝生·經世·傳敎(WC 2: 23~29)이며 그것은 經世와 修身으로 要約될 수 있는 것이었다.

54) “復友人論保敎書” WC 3: 9~10.

이므로 孔敎가 太平世의 宗教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⁵⁾ 이는 保敎를 통하여 中國의 國力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당시 梁啓超의 保敎論은 역시 西學의 정신이 이미 中國에 發現되어 있었다는 假定下에서 전개된 것이며, 다만 實行되지 않았었다는 論理였던 것이다.

요컨대 梁啓超는 變法の 必然性 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成功可能性까지도 傳統을 再評價함으로써 찾아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論理는 결국 西學의 바탕이 이미 中國의 古代에 發現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을 다시 살려낼 때에 中國이 強國化한다는 論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컨대 西學을 버리고 中學을 말하는 者는 그의 中學이 반드시 無用하게 되고, 中學을 버리고 西學을 말하는 者는 그의 西學이 반드시 근본이 없게 된다. 無用無本으로서는 天下를 다스리기에도 모두 부족하다⁵⁶⁾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改革策은 자연히 中體西用論의 내지 東西折衷의인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Ⅳ. 改革方向의 提示

淸日戰爭의 결과에 크게 분격한 많은 開明知識人들은 中國의 將來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公車上書를 올린 바 있었던 康有爲는 梁啓超와 함께 1895年 7月 北京에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強學會를 설립하였으나, 이듬해 初에 활동을 금지 당하고 말았다. 梁啓超는 곧 上海로 가서

55) “論支那宗教改革” WC 3: 54~61.

56) “西學書目表後序” WC 1: 129.

그는 中國의 장래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論中國人種之將來」에서 그는 中國人에 대하여 自治力이 풍부하고 모험독립성이 있으며 學問에 능하여 思想이 발달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西洋思想이 中國에 流入되었고, 사람이 많고 物產이 沃衍해서 장차 全世界商工의 大權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WC 3: 48~54).

時務報를 創刊하였는데⁵⁷⁾, 그는 이 당시 부터 改革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時務報의 言論 특히 「變法通議」에 나타난 그의 變法思想은 1898年 日本亡命 時까지 堅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變法論은 1897年 湖南時務學堂 시절을 통하여 계속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마침내 湖南의 王先謙으로 부터 혁명소굴로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고, 戊戌政變時 중요한 탄핵 이유의 하나로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梁啓超는 자신의 變法思想을 保國會 戒煙足會 南學會등에 관련하면서 계속 천명하였고, 마침내 康有爲를 中心으로 한 變法派의 理論家로서 光緒帝에게 발탁되어 政治權力에 접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理論家로서의 梁啓超는 制度改革에 대한 政策立案 보다는 언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思想을 보급하면서 改革의 方向을 提示하였다는 점에 보다 큰 공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보급하려고 노력한 새로운 思想은 民權 民主 議院의 새 用語로 요약될 수 있고, 그 방법으로서 그는 教育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中國의 歷史를 君權의 發展에 큰 비중을 두고 파악하면서 君과 民이 歷史 속에서 대립적 지위에 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愚民政策으로 일관했던 歷代專制政治를 비판하면서 民權이 伸張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비판은 君權과 民權의 논의에 중점이 두어질 수 밖에 없었다.

梁啓超는 1897年 湖南巡撫 陳寶箴(1831~1900)에게 진의한 「論湖南應辦之事」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모든 法律들을 更新하려면 반드시 上下의 심정이 통하는 것에서 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上下의 심정이 통하게 하려면 반드시 古意를 되살리고 西法을 채용하며 鄉權(地方의 권한)을 重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두가지의 열려가 있으니 첫째는

57) 旬刊인 時務報의 판매부수는 첫째해 8,000부 이듬해에는 12,000부에 이르렀으며, 판매처는 70縣市의 109所에 이르렀다. 그리고 各省 督撫중 開明者들은 산하 관청이나 書院에 時務報의 購讀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였다(賴光臨, 앞의 책, pp. 28~30). 그러나 당시 中國의 인구를 감안해 본다면 時務報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극히 輕微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法을) 다음대로 해석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의 제단을 敎하려면 紳智를 열어야 하고 뒤의 제단을 敎하려면 權限을 한정시켜야 한다. 權限을 한정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西洋人들은 議事와 行事を 둘로 구분하는데 議事之人은 法을 定하는 權限을 가졌고, ……行事之人은 일을 처리하는 權限을 가졌다. 하나의 일을 처리하려면 議員이 모여서 可否를 논의한다. ……法이 定해지면 관이 그것을 실행한다. ……西洋人들의 法度는 고치지 않을 때가 없었으므로 한번 고칠 때마다 그 法은 더욱 정밀해지며, 백성들은 더욱 편해진다. 이는 일을 議論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 의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이다.⁵⁹⁾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權의 개념을 “정치적 權限 혹은 政治的 權利로서 君權에 對比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1898年 이전의 어떠한 글에서도 權을 西歐의 意味인 人間의 基本權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다.⁵⁹⁾ 또한 中國의 弱화 원인을 그는 강대해진 君權의 愚民化政策으로 말미암아 人才가 적어졌다는 점과⁶⁰⁾ 君主들의 防弊 위주의 정치때문에 中國人들이 公的인 權限 즉 民權을 누리지 못한데서 찾고 있기도 하다.⁶¹⁾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民權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議院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西洋의 各國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君權과 民權이 합해질 수 있었던 議院制度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⁶²⁾

그리고, 그는 權과 智가相互依存인 것으로 파악하고 權은 智로 부터 생겨난다고 하면서 民權을 伸張시키려면 반드시 民智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⁶³⁾ 民智를 넓히는 것은 民權을 伸張시켜 民主의 世界 즉 太平世界 이룩하는 첩경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民智를 넓히기 위해서는 紳智를 열어야 하고 紳智를 열기 위해서는 官智를 열어야 된다고 그는 말한다. 官

58) “論湖南應辦之事” WC 3: 43~44, 「戊戌政變記」 p. 133.

59) Philip C. Huang, 앞의 책, pp. 28~29.

60) “變法通議” WC 1: 15.

61) “論中國積弱由於防弊” WC 1: 99~100.

62) 問泰西各國何以強 曰議院哉 議院哉 問議院之立 其意何在 曰君權與民權合 則情易通 議法與行法分 則事易就 二者斯強矣라 말하고 있다(“古議院考” WC 1: 94).

63) “論湖南應辦之事” WC 3: 41.

이 가난하면 백성을 사랑할 수 없고 官이 어리석으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⁶⁴⁾

그러므로 梁啓超는 자신의 變法論을 다음과 같이 闡明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變法の 근본은 人才를 육성함에 있고 人才를 일으키는 것은 學校를 세우는 것에 있다. 學校의 설립은 科擧를 變改함에 있고, 모든 것이 크게 이루어짐은 官制를 改革함에 있다.⁶⁵⁾

소위 洋務派 官僚들의 失策이 人才를 육성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 그는 人才育成의 方法으로서 科擧制度和 學校의 全面的 統合 및 教育內容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變科擧三策을 제시하였는데, 그 要旨는 學校의 졸업생을 그 學歷에 따라 生員·舉人·進士에 比定하여 官吏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科擧의 全面的 廢止를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康有爲·梁啓超·譚嗣同·唐才常등 變法維新派들의 견해는 張之洞등과 같은 보수적인 개혁론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張之洞은 어디까지나 科擧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부분적통합을 주장하였고, 이는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다.⁶⁶⁾

梁啓超가 말한 科擧制度의 改編은 中國의 전통적인 官吏登用方法에 西洋의 學校制度로써 그 허점을 補完한 새로운 構想으로 보인다. 그는 學校의 敎科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자세를 보여준다. 六經諸子를 經으로 하고 西人의 公理公法之書로써 보충하여 天下를 다스리는 法을 求하고, 歷朝掌故를 緯로 하고 希臘의 古史로써 보충하여 古人들의 天下를 다스리는 法을 求하며, 지금의 상황을 用으로 하고 各國의 近來 政事로써 보충하여 오늘날의 天下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例로서 日本은 그러한 折衷을 적절히 하여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64) “論湖南應辦之事” WC 3: 45.

65) “變法通議” WC 1: 10.

66) 清末의 科擧制度 廢止를 둘러싼 改革論議에 대해서는 張義植氏의 “清末의 科擧制 廢止科程 研究”(歷史學報 103, 1984, pp. 173~215)가 참조된다.

이다.⁶⁷⁾

梁啓超는 變官制라고 말하였지만 學校制度의 改革構想인 變科舉策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各縣省의 書院은 小學 中學으로 개편하고 北京에 大學을 두어 人才를 양성하여 官吏로 登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官制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改革해야 하는가에 대한 構想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가 教育改革에 중점을 두었던 점은 官制改革에 중점을 두었던 康有爲와 다른점이라 하겠다.

戊戌政變 이전에 펼쳐졌던 이러한 梁啓超의 改革方向에 대한 論理는 中體西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 일반적으로 쓰여왔던 소위 洋務派 官僚들의 器機만을 의미하는 西學이 아니라, 西洋各國의 富強을 가져오게 한 바탕으로서의 西學을 의미한다. 梁啓超에게 있어서의 中學은 西學을 受容할 수 있는 근거였고 동시에 西學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다시 發現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論理는 西學의 中國受容 이래 점차 발전되어 왔으며 西洋文物中國已有說도 그 範疇內에서 論해졌던 것이다.⁶⁸⁾

V. 맺 음 말

筆者는 지금까지 梁啓超가 戊戌政變時까지 주장한 變法論의 論理構造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제 그의 變法論이 지닌 몇가지 한계점을 논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梁啓超는 三世說을 變法論의 理論의 기초로 삼았고, 그것으로써 變法の 必然性과 當爲性을 자신의 理論에 부여하려 하였다. 그는 公羊派의 歷史理論을 康有爲로 부터 배웠고 그것을 眞理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三世說은 역사현상을 통하여 歸納의으로 抽出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67) “變法通議” WC 1: 63~64 및 “上南皮張尙書書” WC 1: 104~106.

68) 閔斗基, “中體西用論考”; 閔斗基, 「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 pp. 2~56 및 王爾敏, “清季知識分子의 中體西用論”; 『滿清政治思想史論』(臺北, 1969) pp. 51~71 참조.

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三代에는 強盛했다는 復古主義의 觀念과 배워야 할 대상인 西洋의 文物이 이미 中國의 古代에 그 정신이 發現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直線發展史觀인 三世說과 모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梁啓超뿐만이 아니라 譚嗣同 麥孟華등 많은 維新人士들이 三世說을 신봉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指向하는 改革의 目標을 전제로한 假說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日本으로 亡命한 梁啓超는 三世說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좀더 科學的이라 생각되었던 進化論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折衷의인 論理의 한계를 살펴 볼 수 있다. 東洋의 장점과 西洋의 장점을 折衷함으로써 改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자세도 變法論者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던 사고방식이었 다. 그러나 體와 用 즉 본질과 작용은 서로 表裏關係를 이루는 不可分の 것이다. 中學에는 中學의 體와 用이 있고 西學에는 西學의 體와 用이 있 다. 그러므로 中體西用論은 본질적으로 成立될 수 없는 추상적인 논리였 으며, 그것은 자연히 현실과 乖離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⁶⁹⁾ 戊戌改革에 실패한 梁啓超는 日本으로 亡命한 이후 西洋의 文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면서 새로운 체제적 理論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고, 마침내 新民說이라는 理想論을 表明하기에 이른 것이다.

民權論의 경우에서도 역시 한계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말한 民權이란 어디까지나 君權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君權을 제약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지만 인간의 基本權이 前提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69) 이러한 논의는 이미 嚴復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閔斗基 敎授에 의하면 당시 中體西用論者들은 體와 用의 論理의 관계는 문제로 삼지 않았고 西를 어떻게 受用하는가라는 方法이 문제가 되었으며, 따라서 中體西用論者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 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中體西用論考」; 「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 pp. 52—53). 그러나 筆者의 견해로는 西洋文物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유를 표명하였던 諸論議 자체가 西洋文物中國已有說의 非合理的 요소를 가진 未完의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中體西用論의 思考는 論理構造面에서 그 자체가 다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中體西用論이 가진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紳士層의 危機意識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민을 스스로 대표하고 指導하는 紳士層으로서의 계층적 존재와 역할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⁷⁰⁾ 그리고 그는 康有爲와 마찬가지로 革命을 반대하였는데 馮友蘭으로 부터 資產階級化的 地主階級 혹은 新興의 民族資產階級이라는 규정을 받기도 하였다.⁷¹⁾ 紳士階層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民權論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改革主義는 당시 國民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빈곤농민계층에까지 지지를 획득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은 毛澤東의 지지 기반 확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확연해지는 것이다.

民主개념의 경우도 역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康有爲는 제도적 장치와 by the people의 개념이 결집되어 있는 孔子 孟子 黃宗羲등 儒家思想家의 民本의 政治思想을 民主的인 것으로 보았다. 이미 西洋學問을 접하고 있었던 康有爲는 그들의 民本思想에다 立憲君主制와 人民의 지배라는 새로운 것을 융합시켰으며, 아직 西洋學問을 접하지 못했던 梁啓超는 스승의 생각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 孟子的 政治思想을 西歐民主主義와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⁷²⁾ 孟子로부터 民權에 관한 많은 inspiration을 받았으나 물이켜보면 매우 유치한 것이었다고 회고한⁷³⁾ 梁啓超는 亡命 후 西洋思想家들의 이론을 접하면서 점차 傳統的인 儒家的 思想을 탈피하기 시작하였고 反保教論者로 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현실을 直視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으며 戊戌改革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의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론은 危機意識의 結晶이었으며 인간에 관한 本質的인 문제로부터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梁啓超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變法維新人士들의 思想은 이미 同治年間부터 발전되어온 것이었다. 그

70) 閔斗基, 위의 책, 머리말 및 pp. 276—295 참조.

71) 馮友蘭, “梁啓超底思想”; 「中國哲學史論文初集」(上海, 1958) pp. 222—223.

72) Philip, C. Huang, 앞의 책, pp. 20—24.

73) 丁文江, 「梁任公先生年譜長編初稿」 p. 43.

들은 政權獲得에는 실패하였지만, 改革에 관한 理論은 守舊派에 의해서 결국 실시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守舊派에 의한 改革은 소극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었으며, 이는 他力에 의해서 變化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中國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점차 모든 것이 변화할 수 밖에 없었던 歷史的 狀況에서 비록 자신은 실패하였지만 變化의 선두에서 새로운 思想들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梁啓超의 歷史的 역할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思想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정도의 설득력 있는 知識은 아니었지만 未來의 中國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